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VOL.14

2017 FEBRUARY

발간년월 2017년 2월(통권 제14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 Tel 051-797-4343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빅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박광서 성장동력실장

(kspark@kmi.re.kr/051-797-4722)

해양 분야는 특정 산업과 정책, 지역, 국가에 대한 연관어가 많았다. 특히 해양산업은 ‘조선’과 ‘부산’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조선이 해양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라는 인식과 해양수산물과 해양산업의 대표적인 지역이 ‘부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해양공간정보, 해양영토, 해양환경 등 해양의 보호 및 관리 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언급량이 많았다. 이밖에 해양정책에서는 ‘해양안전’, 해양영토에서는 ‘독도’ 등의 언급이 많았다.

수산 분야는 어촌은 ‘체험’, 어민은 ‘중국’, 수산물은 ‘맛(집)’이 핵심 연관어였다. 국민에게 수산물은 ‘맛집’, ‘회’ 등 친근한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촌의 경우는 경제에 대한 우려보다도 체험지로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면과 어촌관광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경제 기여, 국민 먹거리 및 휴식처 제공 등 긍정반응이 많았고, 특히 수산물에 대한 긍정반응이 74%에 달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다.

해운항만 분야는 ‘한진해운’과 ‘부산’의 언급량이 압도적인 가운데 사건과 사고, 대내외 여건과 관련된 연관어가 많았다. 해운에서 한진해운과 함께 ‘금융’이 언급된 점과 ‘해양수산부’가 보이지 않은 점은 시사점이 크다. 이는 해운과 금융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산업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진해운 사태 수습과정에서 해양수산부보다 금융계가 주도했음을 의미한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9월에 관심도가 집중되었으며, 한진해운 사태와 선박 사고, 선원 피살 등이 부정반응을 이끌었다.

이처럼 소셜 빅데이터는 여과없이 전달되는 국민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해양수산 정책 수립 시 국민적 관심사와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이다. 특히 소셜 빅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나아가 매체별로 언급량과 추이가 다르므로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홍보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금번 분석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KMI에서 전문분석업체인 다음소프트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 24개 키워드에 대해 2016.1.1.~12.12.를 대상으로 연관어, 관심도, 호감도를 분석하였음

빅데이터 분석이란?

■ 빅데이터(Big Data)는 단순히 '큰 데이터'를 의미하기보다 '규모가 크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속성이 매우 다양한 데이터'를 의미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서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는 짧은 데 비해 이동속도는 빠르며,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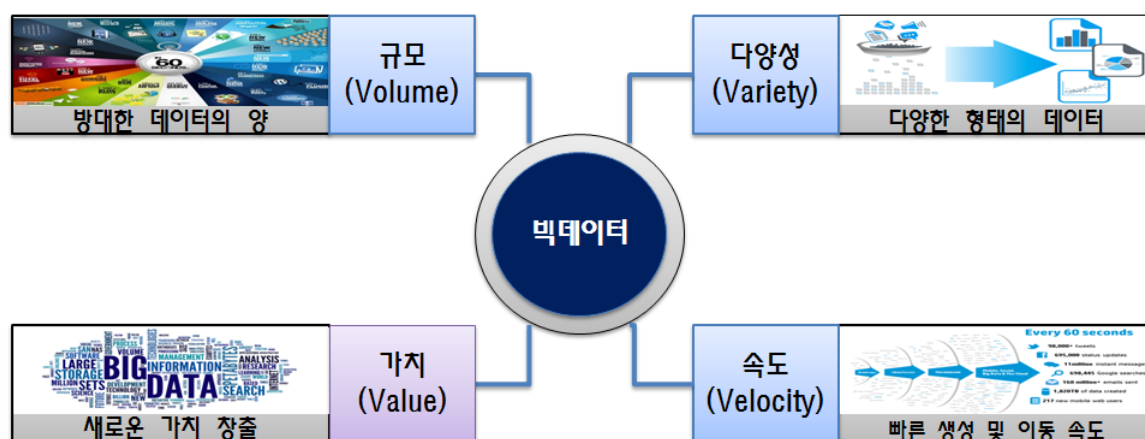
* 2012년 한 해 동안 생성, 복제, 유통된 데이터의 양은 2.8제타바이트(ZB)이며, 2020년에는 약 40ZB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IDC, 2012)¹⁾

- 빅데이터는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즉 3V로 일컬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Value)를 찾는다는 의미를 더해 4V로 빅데이터를 특징짓고 있음

- 빅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 불릴 만큼 기업 경쟁력의 열쇠이자 부(Wealth)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IT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함

※ 세계 빅데이터 시장규모 : (2015년) 226억 달러 → (2026년) 922억 달러²⁾

그림 1. 빅데이터의 특징



1) 제타바이트(ZB)는 1021개를 의미하며, 40ZB는 전 세계 해변 모래알 수의 약 57배에 해당한다고 함(<http://www.bloter.net/archives/137710>, 검색일자 : 2017.1.31.)

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54266/global-big-data-market-forecast/>(검색일자 : 2017.1.31.)

■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뉴스,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로부터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것

-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언급량, 팔로워의 수 등을 분석하는 ‘데이터 통계 분석’,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 관계 및 영향력을 분석하는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의 주제나 긍정·부정의 어조를 분석하는 ‘텍스트 분석’으로 구분됨
-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사회 현상이나 이슈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슈의 확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비즈니스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까지 점차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황승구 외, 2013)
- 즉,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는 사용자의 관심사, 이용 패턴 등 기업의 제품과 브랜드, 국가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 여론,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어 소셜 미디어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어 마케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빅데이터 분석은 패턴을 보여주지만 인과관계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와 이슈, 호감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고 가능

- 해양수산 관련 키워드별로 뉴스,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국민적인 관심사와 동향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다량의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여 정책 수요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즉,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해양수산 정책에 반영할 경우 더욱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해양수산 소셜 빅데이터 분석 개요

■ 해양수산 분야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24개의 키워드를 도출

– 해양 분야는 해양수산, 해양정책, 해양산업 등 총 12개의 키워드를, 수산 분야는 수산물, 어업, 양식업 등 6개, 해운항만 분야는 해운, 항만, 해사안전 등 6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였음

※ 기후변화, 자원관리, 운송 등 해양수산 이외의 분야와 구분하기 힘들거나 선박, 입출항, 하역, 어린물고기, 자율관리 어업, MSC 인증 등 세부적인 키워드는 제외하였음

표 1.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해양수산 관련 키워드

해양(12)	수산(6)	해운항만(6)
해양수산		
해양정책		
해양산업		
해양자원개발	어업	해운
해양공간정보	양식업	항만
해양안보	원양어업	해사안전
극지	어촌	선원
독도	어민	항만개발
해양과학기술	수산물	국제물류
해양영토		
해양관광		
해양환경		

■ 상기 키워드를 토대로 2016년 한 해 동안 소셜 미디어에서 언급된 이슈어, 관심도, 호감도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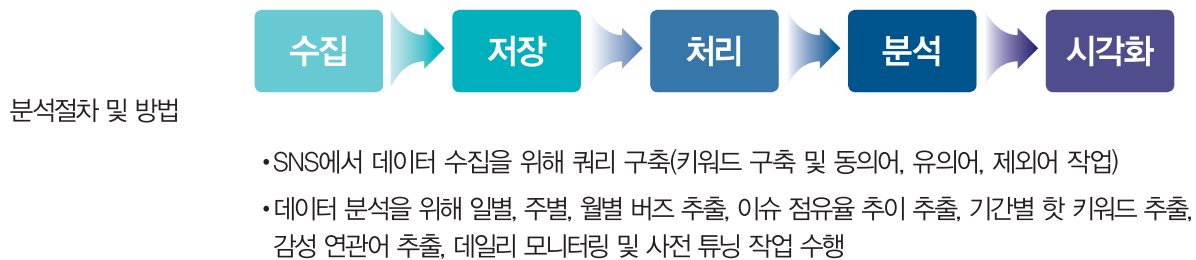
– 빅데이터 전문분석업체인 다음소프트에 의뢰하여 2016.1.1.~12.11.을 대상으로 뉴스와 트위터, 블로그를 분석하였음

– 해양수산 관련 연관어, 관심도, 호감도를 분석하였으며, 블로그에서 리트윗은 제외하였음

– 분석절차는 ‘수집 → 저장 → 처리 → 분석 → 시각화’의 5단계를 거침

그림 2. 해양수산 소셜 빅데이터 분석 개요

대상기간	2016.1.1.~12.11.
분석기간	2016.12.12.~12.31.
대상매체	뉴스, 트위터, 블로그
분석내용	연관어(이슈어), 관심도, 호감도
분석기관	다음소프트



해양수산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총괄]

- 해양수산 관련 24개 키워드 중 언급량은 수산물, 해운, 독도 순이며, 해양정책, 해양공간 정보, 해양안보, 해양영토는 상대적으로 언급량이 미미
 - 수산물은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다 보니 소셜 미디어에서 언급량이 다른 키워드를 압도하고 있으며, 한진해운 사태를 계기로 해운의 언급량도 높게 나타났음
 - 반면에 해양정책, 해양공간정보, 해양안보, 해양영토, 항만 등은 연간 언급량이 1,000건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키워드의 매체별 언급량은 정부가 주도하는 분야는 뉴스에, 민간이 주도하거나 국민 생활 연관성이 큰 경우는 블로그와 트위터의 비중이 높은 편
 - 항만, 해양안보, 해양환경, 해양공간정보 등 정부가 주도하는 분야는 주로 뉴스를 통해 데이터가 생성됨
 - 반면에 수산물, 어촌, 해양자원개발은 블로그에, 독도, 원양어업은 주로 트위터에서 언급되는 등 민간이 주도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키워드는 주로 개인 미디어에서 생성됨

표 2. 해양수산 관련 키워드의 매체별 언급량 현황

구분		언급량(건)				언급 비중(%)		
		뉴스	트위터	블로그	합계	뉴스	트위터	블로그
해양	해양수산	1,219	416	1,024	2,659	45.8	15.6	38.5
	해양정책	89	9	125	223	39.9	4.0	56.1
	해양산업	2,297	257	1,191	3,745	61.3	6.9	31.8
	해양자원개발	554	99	800	1,453	38.1	6.8	55.1
	해양공간정보	174	32	137	343	50.7	9.3	39.9
	해양안보	307	22	77	406	75.6	5.4	19.0
	극지	769	409	758	1,936	39.7	21.1	39.2
	독도	9,129	56,662	29,649	95,440	9.6	59.4	31.1
	해양과학기술	464	229	557	12,50	37.1	18.3	44.6
	해양영토	276	86	317	679	40.6	12.7	46.7
	해양관광	2,306	383	2,242	4,931	46.8	7.8	45.5
	해양환경	2,469	404	2,323	5,196	47.5	7.8	44.7
수산	어업	8,925	12,006	12,733	33,664	26.5	35.7	37.8
	양식업	421	227	621	1,269	33.2	17.9	48.9
	원양어업	1,401	4,652	1,336	7,389	19.0	63.0	18.1
	어촌	4,188	4,731	14,128	23,047	18.2	20.5	61.3
	어민	6,283	6,390	6,929	19,602	32.1	32.6	35.3
	수산물	17,681	70,423	269,068	357,172	5.0	19.7	75.3
해운항만	해운	40,697	35,310	24,486	100,493	40.5	35.1	24.4
	항만	394	36	209	639	61.7	5.6	32.7
	해사안전	1,533	570	1,219	3,322	46.1	17.2	36.7
	선원	24,513	23,322	11,539	59,374	41.3	39.3	19.4
	항만개발	872	86	407	1,365	63.9	6.3	29.8
	국제물류	1,122	363	1,567	3,052	36.8	11.9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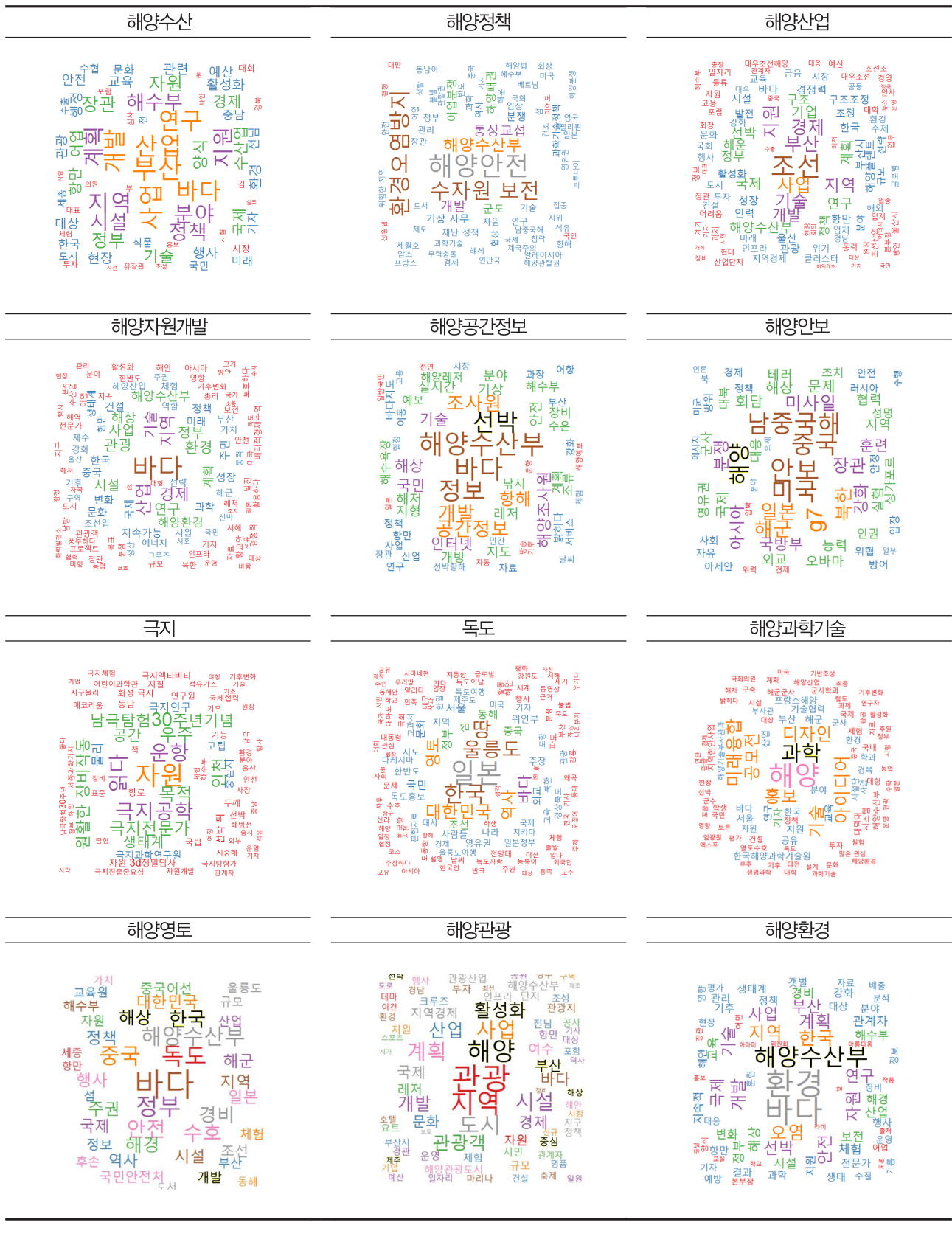
[해양 분야]

■ (연관어) 키워드별로 특정 산업 및 정책, 지역, 국가들에 대한 연관어가 많은 가운데, 정책수행 주체인 해양수산부에 대한 언급도 상위에 랭크

- (해양수산) ‘부산’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산업’, ‘사업’, ‘바다’, ‘지역’, ‘연구’, ‘계획’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개되는 경향을 보임
- (해양정책) ‘해양안전’과 ‘환경오염방지’, ‘수자원보전’ 순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영유권은 해양영토, 중국 불법어업, 환경오염은 오염물질 배출, 바다 쓰레기 처리, 해양생태계 보호 등의 정책적 사안을 다룸

- (해양산업) 연관어로 ‘조선’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항만’, ‘해양플랜트’, ‘해운’ 등 특정 산업과 ‘지역’, ‘기술’, ‘지원’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많은 편임
- (해양자원개발) ‘바다’가 연관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나타남
- (해양공간정보) 해양정보의 대상인 ‘바다’와 추진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해양공간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 ‘해양스포츠 레저활동’과 해양정보인 ‘수온’, ‘조류’, ‘기상’ 등이 연관어로 나타남
- (해양안보) ‘안보’에 이어 ‘미국’과 ‘중국’, ‘북한’, ‘일본’ 등 국가들이 뒤를 잇고 있으며, ‘G7 정상회담’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음
- (극지) 극지연구와 기반 기술에 대한 언급이 많은 만큼 ‘자원(개발)’과 극지방의 ‘생태계’, ‘극지공학’ 및 ‘쇄빙선’을 비롯한 ‘운항’, ‘장비’가 주요 연관어로 검색됨
- (독도)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이 연관어 1위로 확인되며, 영토주권과 관련항 각종 역사적 자료와 외교적 이슈, 여행지로서의 연관어가 함께 등장함
- (해양과학기술) 국제협약이나 국제협력 연관어가 적고 특정 현안에 집중하기보다 산발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어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할 방안이 필요함
- (해양영토) ‘바다’, ‘독도’, ‘중국’, ‘해양수산부’, ‘안전’, ‘경비’, ‘해경’, ‘해군’, ‘수호’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이한 연관어로는 ‘산업’, ‘자원’, ‘섬’, ‘후손’ 등이 있음
- (해양환경) ‘바다’, ‘환경’, ‘해양수산부’, ‘개발’, ‘오염’, ‘연구’ 등이 주요 연관어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이한 연관어로는 ‘기술’, ‘안전’, ‘기후’ 등이 있음
- (해양관광) ‘관광’, ‘지역’, ‘해양’, ‘계획’, ‘도시’, ‘활성화’ 등의 언급이 많고 정부부처로 ‘해양수산부’, 지역으로는 ‘부산’, ‘여수’, ‘전남’, ‘경남’, ‘포항’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문화’, ‘일자리’, ‘축제’ 등도 나타남

그림 3. 해양 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 연관어



■ (관심도) 뉴스가 전반적인 관심을 리드하는 가운데 해양자원개발은 블로그, 독도는 트위터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정 이벤트를 중심으로 관심도가 증가

- (해양수산) 세 매체 간에 추이적 연관성은 7~8월에만 나타나며, 동기간 동안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해양수산부의 공식 행사, MOU 체결, 정책 등이 언급됨
- (해양정책) 중국의 불법조업과 바다 오염을 축으로 언급량이 증감하고 있으며, 7월의 경우 남중국해가 공해(公海)라는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언급량이 급증함
- (해양산업) 매체별 관심도가 뉴스 > 블로그 > 트위터 순으로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뉴스의 경우 해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언급량 증감 추세를 보임
- (해양자원개발) 블로그 > 뉴스 > 트위터 순으로 언급량 추이가 나타나며, 특히 블로그와 뉴스는 유사한 관심도를 보임
- (해양공간정보) 뉴스 → 블로그 → 트위터 순의 추이상 후행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6~7월의 관심도 증가는 해양공간정보의 산업화 공식 발표에 따른 것임
- (해양안보) 트위터와 블로그는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5월에 뉴스 언급량이 폭증한 것은 G7 정상 회담의 영향임
- (극지) 주기적인 추이는 발생하지 않지만 가장 많은 관심도를 보인 6월의 경우 극지연구소의 업무 협약 체결, 극지공학포럼 개최, 극지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에 따른 것임
- (독도) 매체별 관심도는 모두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관심도가 집중된 8월은 일본 방위 백서 출간과 대한민국 국회의 독도 방문, 10월은 독도의 날과 관련이 있음
- (해양과학기술) 8월 아이디어 공모전, 10월 여수국제해양포럼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관심도가 낮음
- (해양영토) 3.1절, 광복절 같은 일본관련 기념일에 집중되거나, 새로운 조사결과와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시점 등 부정기적으로 언급됨
- (해양환경) 비교적 연중 고른 분포를 보이거나 5월 이후 8월까지 해양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많이 언급되는 경향을 보임
- (해양관광) 뉴스에서는 해양관광 콘텐츠 중심으로 월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도가 나타나며, 블로그에서는 해양관광특구, 해양관광단지 등 산업적 보도가 공유되며 비정기적 추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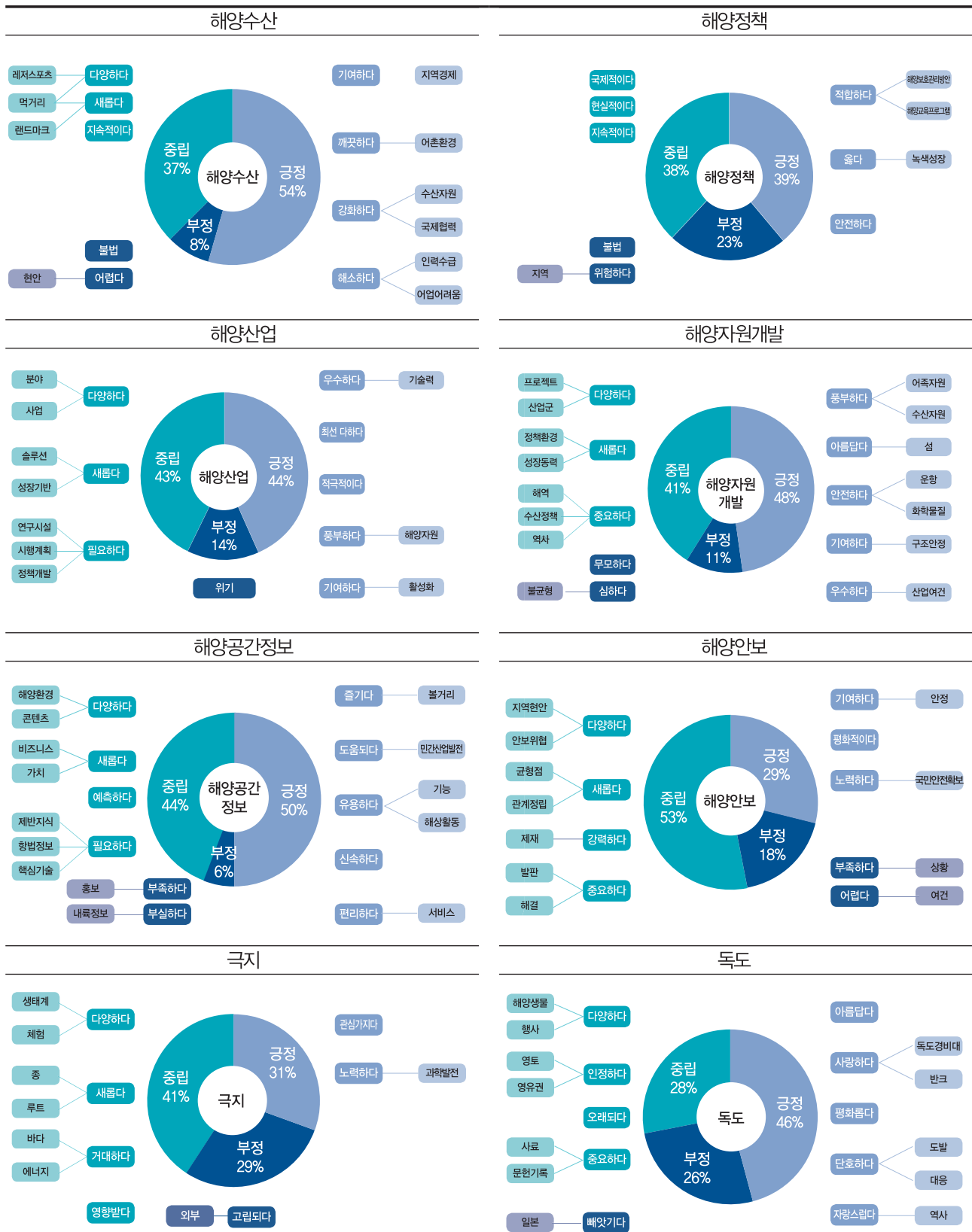
그림 4. 해양 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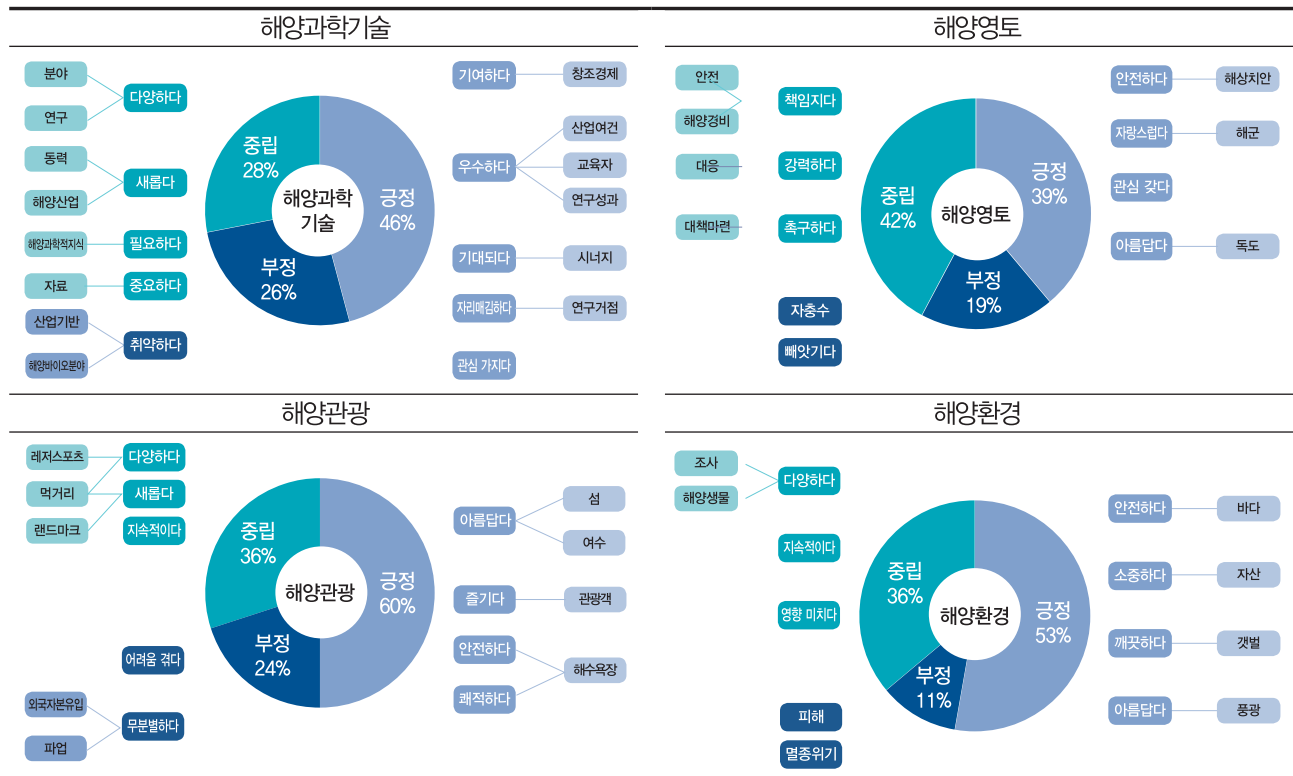


■ (호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독도, 해양영토 등 국제관계와 영유권, 해양과학기술 인프라, 극지 연구환경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생성

- (해양수산) 해양수산 관련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54%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언급은 8%에 불과함
- (해양정책) 해양산업 육성정책, 해상경비 강화에 대한 해양정책의 긍정반응은 높게 나타나나 해양안전과 불법어업 등은 부정적인 반응이 23%에 달함
- (해양산업) 해양산업에 필요한 여건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해양자원개발) 해양자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반응을 보이나 자원개발을 위한 시설이나 여건, 법적 환경 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반응이 나타남
- (해양공간정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이라는 데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홍보 수준과 인지도 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해양안보) 국제적 긴장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다 보니 긍정비율이 29%에 불과함
- (극지) 극지 연구의 열악한 환경 위주로 부정적인 반응이 형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및 연구성과 관련 부문 중심으로 긍정반응이 31%를 보임
- (독도) 독도 풍경이나 독도에 대한 관심 항목들이 긍정으로 46%의 비중을 보이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비중이 26%를 차지함
- (해양과학기술) 해양과학기술의 성과를 중심으로 긍정반응이 나타나고, 필요성과 중요성은 중립으로, 연구기반 취약성과 국민적 관심 부족은 부정으로 나타남
- (해양영토) 영유권을 둘러싼 주권 문제인 만큼 타 키워드에 비해 중립과 부정반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해양환경)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필요성과 해양환경자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 해양 자원 조사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에 대해서는 중립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함
- (해양관광)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와 환경 조성,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 등 여건 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60%를 차지함

그림 5. 해양 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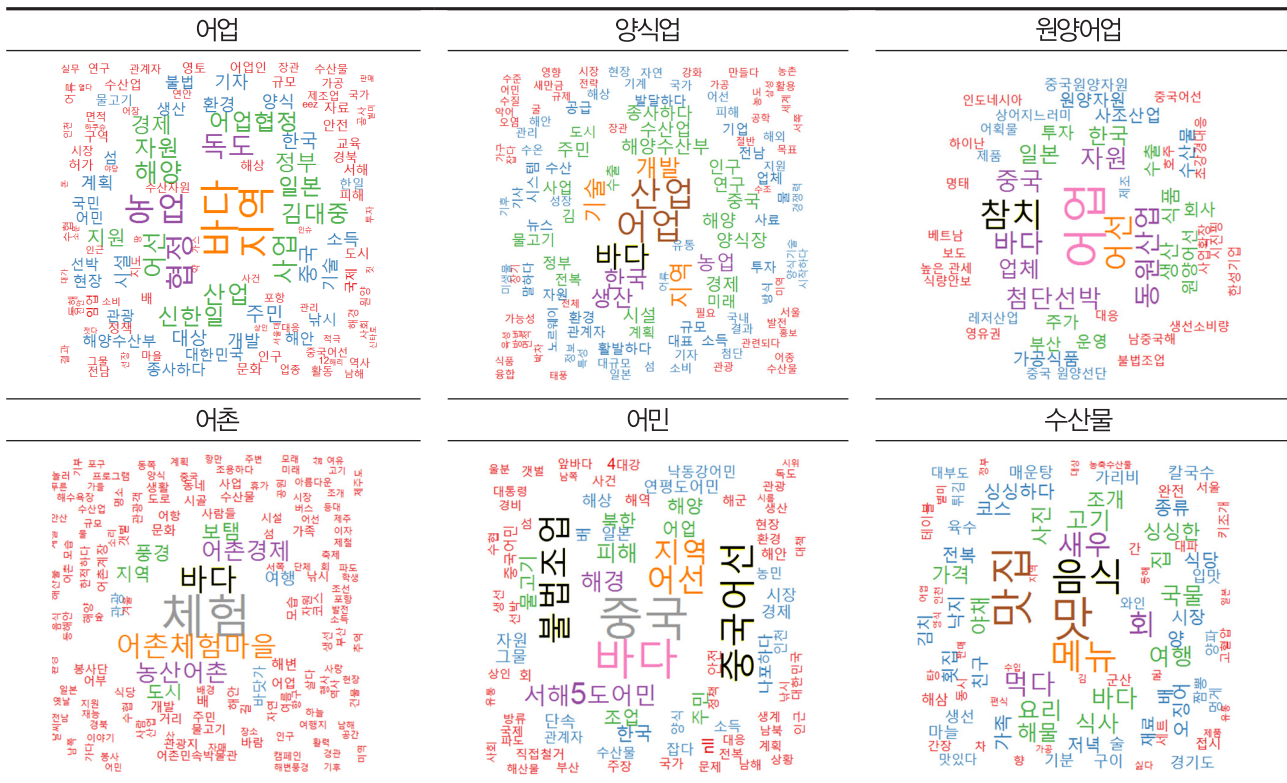


[수산 분야]

■ (연관어) ‘어업’, ‘바다’를 중심으로 연관어들이 형성되고, 어촌은 ‘체험’, 어민은 ‘중국’, 수산물은 ‘맛집’이 핵심 연관어

- (어업) 어업이 이루어지는 ‘바다’가 연관어 1위이고, ‘지역’, ‘농업’, ‘협정’, ‘독도’, ‘어선’ 등에 대한 언급도 많은 편이며 타 연관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집중됨
- (양식업) 어업의 연관어로 양식업이 없었던 데 비해 양식업의 연관어로 ‘어업’이 1위를 차지하였고, ‘산업’, ‘바다’, ‘개발’, ‘해양수산부’ 등이 상위에 랭크됨
- (원양어업) ‘어업’ 외에 ‘참치’, ‘어선’이 높은 순위 차지, 기업으로는 ‘동원산업’과 ‘사조산업’이 올라 있으며, 수산물 자체보다 수산식품의 ‘무역여건’, ‘어획량’, ‘생산량’ 등을 포괄하는 산업적 연관어가 중심
- (어촌) ‘체험’을 중심으로 연관어가 형성되고 있으며, ‘풍경’, ‘기상조건’, ‘휴가’, ‘먹거리’, ‘해산물’, ‘회’ 등 여행과 관련된 연관어들이 언급됨
- (어민) 국내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획량’, ‘어종’ 등 수산물 관련 연관어와 어민 피해 관련 연관어들이 언급됨
- (수산물) ‘맛집’, ‘맛’, ‘음식’, ‘메뉴’, ‘여행’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새우’, ‘회’, ‘조개’, ‘오징어’, ‘전복’, ‘낙지’, ‘장어’, ‘멍게’, ‘바지락’ 등 수산물 이름도 다양하게 나옴

그림 6. 수산 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 연관어



- (관심도) 수산 관련 키워드는 주로 블로그를 통해 생성·공유되며, 특정 이슈뿐만 아니라 계절적 차이도 존재

- (어업) 어업은 한-일, 한-중 관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9월에는 한-일 어업협정 장기화와 제주 해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슈화됨
- (양식업) 블로그를 위주로 양식기술과 양식 수산물 위주의 문서들이 생성·공유됨
- (원양어업) 원양어업은 원양업계 동향 및 어획량, 불법 조업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2월의 경우 동원산업의 투자 확대가 보도되면서 언급량이 대폭 증가함
- (어촌) 어촌은 여행 중심의 연관어이다 보니 블로그에서의 언급량이 많고 하계 휴가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어민) 타 키워드보다 높은 관심도를 보이며,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개진이 많은 편임
- (수산물) 블로그에서 여행과 맛집 탐방 위주의 문서들이 작성되어 세 매체 중에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으며, 콜레라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수산 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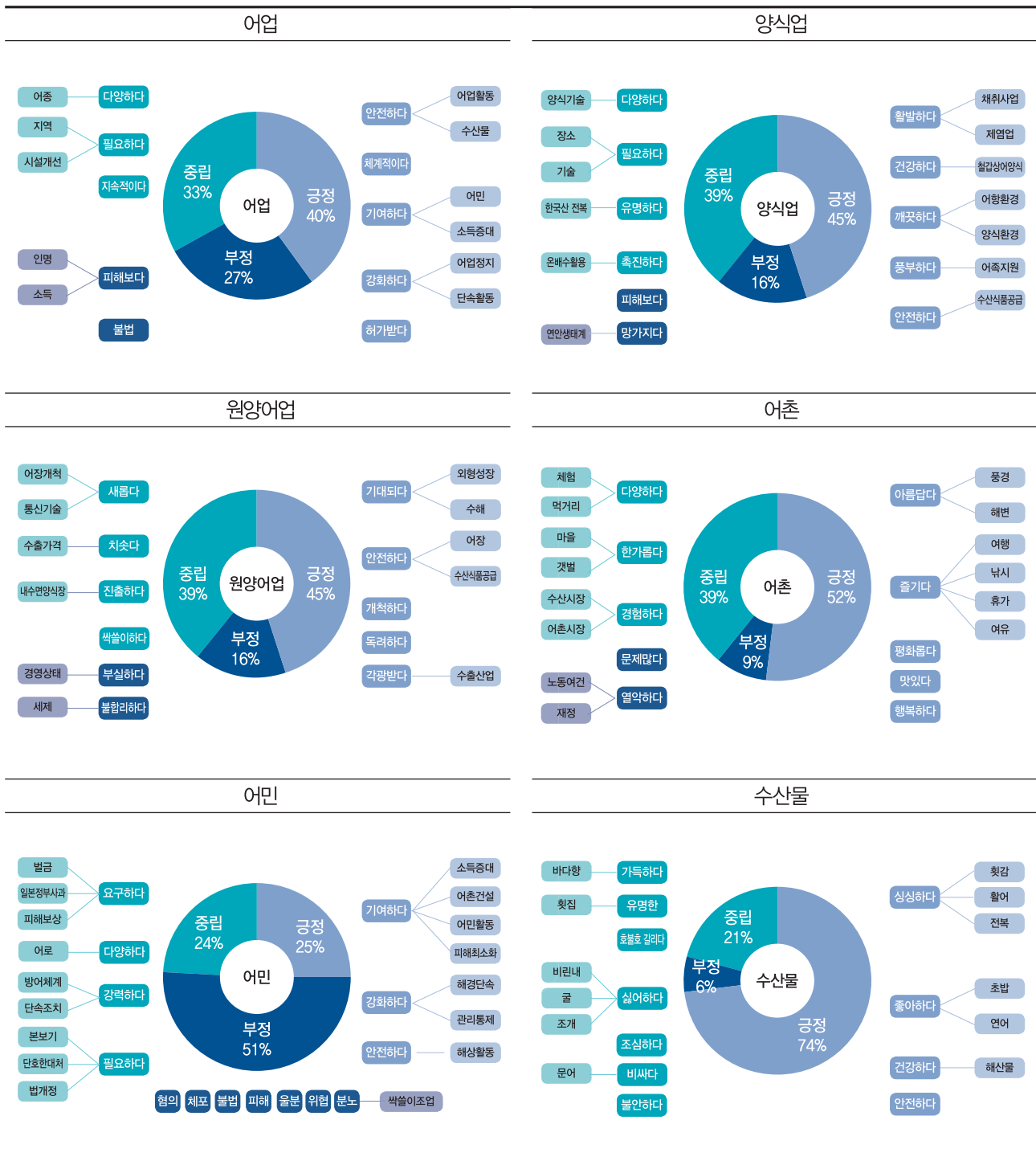


주: ■ 트위터 ■ 블로그 ■ 뉴스

■ (호감도) 지역경제 기여, 국민 먹거리 및 휴식처 제공 등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불법조업, 경영 악화, 생태계 악영향 등 부정적인 반응이 존재

- (어업) 지역의 경제기반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40%를 보이지만 불법조업, 인명이나 소득상의 피해 등 부정적인 반응도 27%에 달함
- (양식업) 자원과 양식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중립 및 부정적인 반응은 주로 양식업으로 인한 각종 영향에 대한 내용 위주임
- (원양어업) 산업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으며, 현재 경영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임
- (어촌)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긍정반응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정 비중은 수산 분야 키워드 중 가장 적은 9%를 차지함
- (어민) 중국과 일본의 불법조업 행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흡 등으로 부정적인 비중이 51%를 차지함
- (수산물) 수산물에 대한 호감도가 74%에 달하고 있으며, 비싸거나 싫어한다는 반응도 존재함

그림 8. 수산 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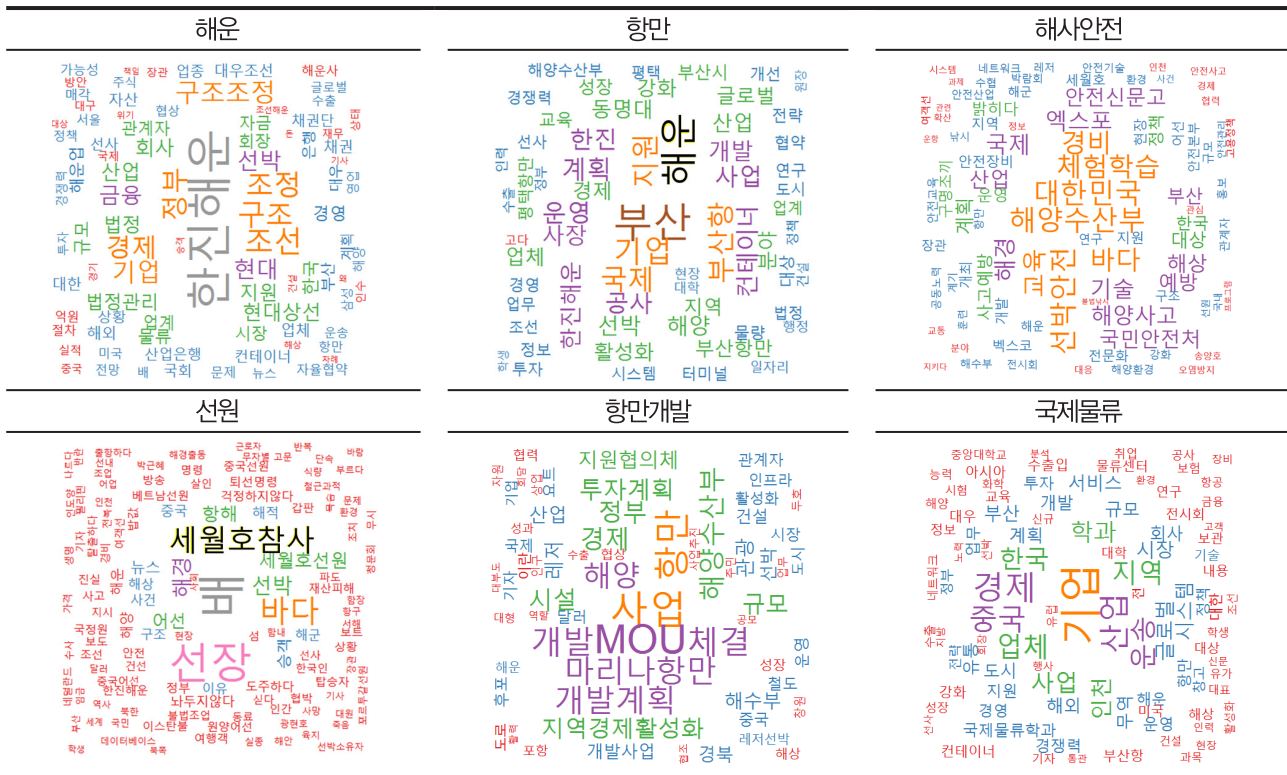


[해운항만 분야]

■ (연관어) ‘한진해운’과 ‘부산’의 언급량이 압도적인 가운데 사건과 사고, 대내외 여건 등이 상위어 랭크

- (해운) ‘한진해운’이 압도적인 언급량을 보였으며, 한진해운 사태를 둘러싼 ‘정부’, ‘기업’, ‘구조조정’, ‘금융’ 등이 같이 언급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보이지 않음
- (항만) 부산이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해운’, ‘기업’, ‘지원’, ‘부산항’, ‘한진해운’ 등이 높은 연관도를 보임
- (해사안전) ‘해양수산부’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의한 공식 발표문서 위주의 연관어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선원) ‘배’, ‘선장’이 각각 1위, 2위를 보인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3위를 차지하는 등 사건과 사고 위주의 연관어들이 분포함
- (항만개발) ‘사업’, ‘항만’, ‘마리나항만’, ‘개발계획’ 등 산업적 연관어들이 주로 분포하나 ‘레저선박’, ‘해양관광’, ‘요트’ 등 항만개발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연관어도 분포함
- (국제물류) 수출입과 관련되는 ‘기업’, ‘경제’, ‘산업’, ‘운송’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가’, ‘통관’, ‘정보’, ‘기술’ 등 국제물류 여건과 관련된 연관어가 같이 언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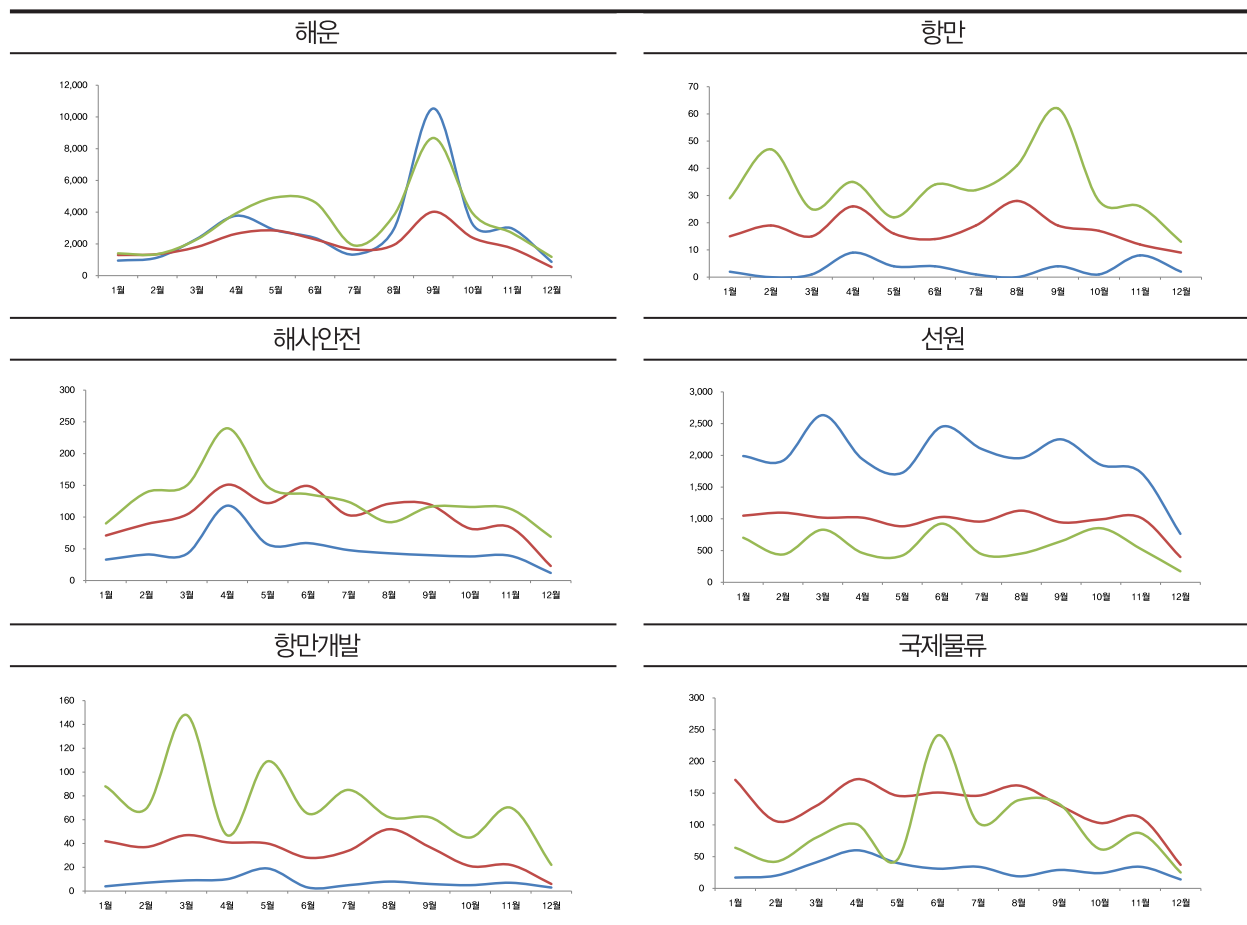
그림 9. 해운항만 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 연관어



■ (관심도) 한진해운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거시적인 관점보다 계절성과 이슈 중심으로 언급량이 증가하는 경향

- (해운) 한진해운 사태가 본격화된 9월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냄
- (항만) 노출 건수가 적으며, 해운과 마찬가지로 한진해운 사태가 본격화된 9월경이 가장 많은 언급량을 보임
- (해사안전)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의 여파로 7월 언급량이 눈에 띄게 많으며, 안전사고 수칙과 같은 문서들이 블로그를 중심으로 생성됨
- (선원) 트위터의 언급량이 많은 가운데, 3월 세월호 이슈와 6월 한국인 선원 살해 사건으로 언급량이 증가함
- (항만개발) 3월 한-이집트 항만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 5월 한-이란 항만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이슈 중심으로 뉴스화가 됨
- (국제물류) 4월까지의 ‘국제물류산업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6월의 경우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와 연관됨

그림 10. 해운항만 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 관심도



주: ■ 트위터 ■ 블로그 ■ 뉴스

■ (호감도) 한진해운 사태, 세월호 참사 여파, 선원 사망사건 발생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표출

- (해운) 부정적인 언급이 50%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반응이 반영된 결과임
- (항만) 한진해운 사태의 관련성이 해운보다 더 적고 세부적인 대안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 중립과 긍정반응이 같은 비중을 차지함
- (해사안전) 문서의 내용이 안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긍정 비중이 64%를 차지하였음
- (선원) 세월호 참사, 선박 사고, 원양어선 선원 피살사건으로 부정 비중이 39%를 차지함
- (항만개발) 항만이 도시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으로 긍정 비중이 46%를 차지하였으며, 부족하거나 어렵다는 부정적 반응은 11%에 그침
- (국제물류) 국제물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 중립 반응이 47%를 차지하였고, 애로사항 등 부정적인 반응은 17%로 나타남

그림 11. 해운항만 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 호감도



시사점 및 정책방향

■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수립·시행 필요

- 해양 분야는 특정 산업 및 정책, 지역, 국가들에 대한 연관어가 많고, 수산 분야는 ‘어업’, ‘체험’, ‘중국’, ‘맛(집)’ 등 핵심연관어가 다양하며, 해운항만 분야는 ‘한진해운’과 ‘부산’의 언급량이 압도적인 가운데 사건과 사고, 대내외 여건 등이 상위에 랭크됨
- 소셜 빅데이터는 여과 없이 전달되는 국민의 목소리로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으며, 특히 키워드를 더 세분화하고 연령, 성, 지역 등 사회적 변수까지 반영할 경우 더욱 가치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 정책 수립 시 국민적 관심사와 정책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셜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해운, 항만 등 다수의 키워드에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시행 필요

- 해양안보, 독도, 해양영토 등 국제관계와 영유권 관련 문제, 산업 인프라 여건, 불법조업 및 해양 환경오염, 안전사고 발생 등은 부정적인 언급이 다수를 차지함
- 따라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 분야의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언급량과 언급되는 매체에서 차이 발생, 더욱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필요

- 수산물, 해운, 독도 등 민간이 주도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언급이 많은 반면에 해양정책, 해양안보, 해양영토 등 정부가 주도하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편임
- 또한 항만, 해양안보, 해양환경 등 정부 주도인 분야는 뉴스에서, 해양자원개발, 수산물, 어촌 등 민간 주도인 분야는 블로그와 트위터 등 개인미디어에서 주로 언급됨
- 따라서 정부 정책이 국민경제 및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뉴스뿐만 아니라 블로그, 트위터 등 개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한 특정 이슈나 계절성 중심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블로그, 트위터 등 개인매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성과들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또는 동영상 등으로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음

KMI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8.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5.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URL : <http://www.kmi.re.kr/web/main/web/trebook/list.do?rbsidx=273&page=2>